

지역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제대로 알자”

대한건설협 전남도회·광주시회 18일 ‘안전보건역량 교육’ 사례별 대응 등 핵심 강의...안전보건관리 구축 적극 도움

광주·전남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적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마찬호)와 광주시회(회장 김명기)는 14일

“오는 18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안전보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을 지난 1월27일부터 50억 미만의 건

설현장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된다. 제1강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경향 및 주요 사례를 주제로 대응 핵심 사항, 핵심 의무위반 유형 및 법률적 쟁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2강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주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의 및 중대재해처벌

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주관한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광주시회는 교육 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사례집 배포, 대응매뉴얼 제공,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달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지난 1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쟁기대회에 참석해 지역 건설업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관련 법안 적용에 앞서 지난 1월21일에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서도 법안 속지에 집중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법안을 제대로 알고 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만큼 지역업체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임채만 기자



광주은행은 지난 13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광주은행 제공)

“소기업·소상공인 재도전 문턱 낮춘다”

광주은행·전남신보, 재기지원 MOU 체결 신보 대위변제 채무자 2년간 3% 이차보전

광주은행은 14일 “전날 광주은행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사업에 실패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 재

도전 문턱을 낮춰 민생회복 및 재기지원의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채무자로 사업재기 의지 및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전남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2년간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광주·전남 신용보증재단에 총 49억원을 특별출연, 약 882억원의 특별보증대출을 공급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임채만 기자

전남농업기술원,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기술교육’

영농철 농기계 사전 점검 맞춤형 정비로 농업인 불편 해소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수리가 쉽지 않은 도서·오지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리·교육 봉사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자가 정비와 기술을 향상시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찾아가서 해결하는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는 19일 영광군 안마도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회수리에는 농기계 교관과 품목별 전문지도사 10명 등 시·군 합동 수리반으로 구성, 7월 말까지 도서 및 산간 오지 지역 6개와 시·군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기원은 농기계 점검·정비, 안전관리 방법 등 자체수리 능력을 배양하는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영농철을 맞아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교육을 병행하고 기술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순회 수리팀은 고장으로 방치된 농기계는 마을회관 등 현장에서 수리하고, 고령 농가와 취약계층, 여성농업인 등이 소유 하고 있는 농기계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 수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농기원은 지난 해에도 진도군 등 7개 시·군 21개 마을에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실시하는 등 매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재천 농업교육과장은 “이번 농기계 수리·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전 사고 예방 등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목포 산정새마을금고 고하도윗마을 해변 정화활동

목포 산정새마을금고는 14일 “최근 ESG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에 입양한 반려해변인 고하도윗마을해변에서 해변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반려해변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특정 해변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정화활동에는 특별히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이 함께 동참한 가운데



대 약 200kg의 해양폐기물 및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했다. 김관용 목포 산정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되기 위해 ESG운영단과 환경정화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다양한

ESG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정새마을금고는 오는 2025년 11월 까지 고하도 윗마을 해변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해 관리할 계획이다. /목포=정혜선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